

4» 양 캠퍼스 49대 총학생회 공약점검



경희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6» 폐시약통 외부 방치 실태



8»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 강채영 선수



책임부총장제 공개에 교수의회 등 ‘반발’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학교가 지난달 11일 공개한 책임부총장제도 시행계획에 교수의회와 ‘통합노조’가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도 높게 쏟아냈다. 업무연락 형태로 발송된 책임부총장제도 문건에는 현재 다섯 자리(서울부총장, 국제부총장, 의무부총장, 재정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로 정하고 있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총장의 말 한 마디에 규정이 무시되는 처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책임부총장제를 주도한 미래정책원은 “책임부총장의 대외적인 직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부총장 간 결재·보고체계 맨 위에 책임부총장이 있도록 바꾸고, 책임부총장직은 현 대외협력부총장인 한균태 부총장이 맡는다. 이에 교수의회와 설립준비 중에 있는 ‘통합노조’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교수의회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와 교수 대상 메일링을 통해 책임부총장제도를 ‘우리대학이 처한 고질적인 인사적체를 총망라하는 대

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곤 3가지 논점으로 꼬집었다. 첫 번째는 법인 정관을 근거로 들었다. 법인 정관 제87조에는 부총장 직위를 현재와 같은 5 자리(서울부총장, 국제부총장, 의무부총장, 재정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로 정하고 있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총장의 말 한 마디에 규정이 무시되는 처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책임부총장제를 주도한 미래정책원은 “책임부총장의 대외적인 직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교수의회는 책임부총장으로 내정된 한균태 부총장의 자질에 대해 말했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올해 초 교수들이 평가한 한균태 부총장의 직무평가 점수를 들며 “전체 교수들의 절반이 넘게 (56%) 참여한 평가에서, 보직자들 중 최하점을 받은 한균태 부총장의 직위를 격상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근 의장은 “대

다수 구성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인사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책임부총장으로 내정된 한균태 대외협력부총장은 “기준도 알 수 없는 교수 간 인사평가 점수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반응이다. 한균태 부총장은 “교수의회는 교수 복지를 위해 있는 단체”라며 “총장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직평가 결과에 관해선 “교수들에게 연구를 권하는 정책을 펴왔던 것의 반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교수의회는 “책임부총장제도 계획문건에 책임부총장의 업무로 명시돼 있는 ‘각 부총장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체제 마련’, ‘거 교육 사업에 대한 권한 및 책임부여’ 등의 일들은 총장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총장의 모든 고유 업무를 책임부총장

에게 떠넘기겠다면 총장은 도대체 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책임부총장 도입에 앞서 구성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하고 새 거버넌스 변경안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노조도 마찬가지로 “책임부총장제도는 ‘무책임 총장제도’와 같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총장 인사 신설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 권범석 부원장은 “‘육상옥’으로 책임부총장을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권범석 부원장은 교수의회 등의 반응에 대해 “제도가 바뀌면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제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응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대외협력부총장의 역할이 늘어나는 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며 “이전의 정책부총장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돈 안내면 졸업 불가 압박’ 제보 이어져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국제】연극영화학과 연극트랙에서 ‘공연제작실습비를 내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익명의 제보자는 “교수님이 수업 도중 실습비는 추가등록금이며, 내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극영화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학과장 명의의 공연제작실습비를 내지 않으면 졸업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2015년의 게시물이 있었다. “8학기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졸업논문에서 Fail된다는 점입니다”며 미납할 경우 졸업이 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학민(연극영화학) 교수는 “돈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한 적 없다”며 “돈과 졸업은 상관이 없다. 학생들이 돈을 건여 공연비에 쓰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이를 안내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돈을 건는데 교수가 체크를 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2015년 졸업이 안 된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쓴 전 학과장인 연극영화학 이효인 교수는 “연극트랙의 내부규정은 잘 모르며 졸업불가 판단은 각 트랙교수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의 관계자는 “안내는 학생들은 미납자로 따로 관리하고, 교수님이 직접 체크를 하신다”

며 “납부가 안 된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다”며 교수가 이를 관리한다고 밝혔다. 일반 학생들도 교수가 돈을 내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돈을 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는 불이익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연극영화학 학생이라면 당연히 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공연제작실습비를 어떻게 견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에 참가한 학생들은 “공연제작실습비 납부를 강제할 순 없지만 안 낸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이 학생들은 “1학기에는 연극, 2학기에는 뮤지컬을 해야 졸업이 인정되는데 연극은 논문으로 대체가능하지만 뮤지컬은 불가능하다. 둘 중 하나만 패스가 되지 않아도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즉 학생들이 돈을 건여 공연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이를 안내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돈을 건데 교수가 체크를 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2015년 졸업이 안 된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쓴 전 학과장인 연극영화학 이효인 교수는 “연극트랙의 내부규정은 잘 모르며 졸업불가 판단은 각 트랙교수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3장 전공과정에는 “연극트랙 학생들은 매학기 자체 공연 실습비 등을 위해 소정의 추가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재정예산처 이승민 계장은 “추가등록금이라는 것은 등록금이 인상되는 일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학생에게 자율적으로 돈을 건도록 맡겨놓은 일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학문 공동체와 인권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본 토론회는 대학원생이 겪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지적하며 인권이 지켜지는 대학원이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사진=이수형 기자)

대학원 인권토론회 진행 ‘대학원생 인권, 어디까지 왔나’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지난달 27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학생 인권의 제도적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에는 서정호 동국대대학원 총학생회장, 유현미 서울대대학원 대학원생, 김민섭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 저자, 김중섭 경상대 교수, 우리 학교 김민철(후마니타스칼리지), 최진환(기계공학) 교수가 참석했다. 사회는 일반대학원 송재룡 원장이 맡았다.

주최자인 일반대학원 윤단비(무

용학) 회장은 발제에 앞서 10월 9일부터 2주 간 진행된 대학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2016년에 진행한 같은 설문에서 나온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1년 동안 해온 인권활동들이 다 무의미한 활동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난 노예 처럼 일을 하지만 돈을 벌진 못한다’는 설문 반응이 있었다”며 “과도한 업무로 공부할 시간을 침해당하지만 돈을 벌진 못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권을 침해

받지 않고 자신에 주어진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지 얘기해 보자”는 윤단비 회장의 발제에 첫 발언을 꺼낸 이는 서울대대학원 대학원생 유현미 씨였다. 유현미 씨는 지난해 발생한 ‘서울대 교수 성희롱 및 갑질’ 건에 대응하고자 대책위를 만들어 일해왔다. 유현미 씨는 “서울대의 사건은 한 교수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대학원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권력관계와 부조리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대학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차례로 발언한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의 저자 김민섭 씨는 대학원 인권실태조사 응답자 577명 중 63%가 본인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 ‘학생+근로자’로 답한 것을 두고 “당연히 지금의 대학원생은 학생이자 근로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섭 씨는 “조교 장학금은 장학금이라기 보단 노동의 대가”라며 “이 대가를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했는데, 송재룡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5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66기 수습기자모집

모집대상 : 1학년,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모집일정 :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 참조
(www.mediakhu.ac.kr/khunews)

전문가 칼럼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원(SW융합학) 교수 >> 7면

